

사라진 '불법 현수막'... 광산구 도로 환해졌다

박병규 구청장 "시민 체감 변화" 약속... 전년 대비 55% 이상 감소 수거보상제 확대·지역책임관리제 운영 등 노력... 행정처분도 강화

"작년까지만해도 시도 때도 없이 노상에 부착된 현수막 때문에 횡단 보도를 건널 때면 시야가 막혀 위험했는데 요즘에는 현수막 걸린 길 못 봐요.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광주 광산구 대로변에서 광고 현수막이 사라지고 있다. "웬일로 현수막이 안 보이죠?" 길을 지나는 시민들도 놀랄 정도다.

광산구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 지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3개월간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성 광고물 5만 1897건을 정비했다. 정비건 중 불법 현수막은 2만 9864건으로 지난해 6만 6784건에 비해 55% 이상 감소했다. 특히 정비 기간 중 불법 광고물 2185건을 적발해 3억 4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 조치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불법적으로 게시된 광고물이 28% 정도 감소하는 등 점차 근절되고

는 양상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그동안 불법 광고물 대응 노력에도 체감되는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뒤 기존 대응 체계의 문제를 철저히 진단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 유망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를 호소하며 분양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박병규 구청장에 직접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박 구청장은 "어려운 건설업계 사정은 안타깝지만, 불법광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며 강한 근절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상습·대량의 분양 현수막, 정비취약 시간대를 노린 게릴라성 불법 광고물의 근절을 목표로 단순히 물리적 현장정비가 아닌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생활 속 주민 중심의 불법 광고물 정비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지역 81개 사회단체



광산구 불법광고물 정비원들이 도로 위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2292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불법 광고물 지역 책임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는 특히 주중 야간과 주말(공휴일) 등 정비 취약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내걸리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게릴라성 불법 광고물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정비반을 주중·주말 야간 10시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1년 365일 빈틈없는 정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광고 행위자에 대한 행정

처분도 강화하고 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불법 광고물은 물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와 현장정비반에서 정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선 것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의 보행환경을 어지럽히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연중무휴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확고한 처벌로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평가 광산구, 5개 자치구 중 1위

광주 광산구는 "2024년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평가에서 광주 5개 자치구 중 1위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가 2023년 기준으로 5개 자치구 재산관리 실적, 대부 실적, 변상금 부과·징수 실적, 매각 실적, 공유재산 관리 노력도 등 7개 부문 16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광산구는 총 9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산구는 공유재산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자 및 목적 외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해 징수율 100%를 달성하는 등 재산권 보전 및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했다. 고령자가 많은 농촌 지역을 위해 '찾아가는 공유재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 적극 행정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또 '보존 부적합' 자투리 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집중해 왔다.

광산구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 대금 30% 귀속률 적용해 1500만 원의 공유재산 관리 보조금 등 혜택을 받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환경보호 알리고 자원순환 실천 자원순환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

광주 광산구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활동할 39명 자원순환해설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자원순환해설사 등록, 예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마쳤으며, 지난 20일에는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교구를 활용한 강의 시연,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광산구는 이를 시작으로 27일 광산구 자원순환 AR, VR(증강·가상현실) 체험관에서 AR, VR 시설을 활용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시연, 4월 15일 광산구청에서 생활 속 자원재활용 등을 주제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를 통해 기후위기 원인과 현상,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쓰레기 없애기(제로웨이스트) 등을 담은 효과적인 강의 방법을 교육하고, 자원순환교실 참여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보드게임' 시연도 할 예정이다.

39명의 광산구 자원순환해설사는 올해 어린이 집, 학교 등 광산구 곳곳을 찾다니며 아동, 청소년, 주민을 위한 자원순환 교실을 열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실천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이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가치, 실천 방안을 알리는 것을 넘어 실제 자원을 덜 버리고, 다시 쓰는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원순환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4명의 자원순환해설사를 양성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교실'을 운영, 여기에는 총 4만 3349명의 아동, 청소년, 주민이 참여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사하 공화국과 교류 협력 '첫발'

대표단 접견...문화·예술·교육·청소년 분야 협력 논의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26일 구청에서 사하(아쿠티아) 공화국 스타니스라브 지르코프 국립의료원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러시아 민간 교류 협력기구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이사장 이규환)'를 통해 마련됐다.

러시아 극동 북부에 위치한 사하 공화국은 310만명으로 러시아 83개 연방 주체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99만 명으로, 2개 시와 34개 군이 속해 있다.

광주를 대표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광산구와의 국제교류를 협의하고자 구청을 방문한 대표단은 사하 공화국 34개 군 중 하나인 한갈라스울루스의 올렉 V. 이리네예프 주지사 친서를 박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한갈라스울루스는 한국과 7년 넘게 문화, 교육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온 곳으로 '한국문화센터'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박 구청장이 받은 친서에는 광산구와 문화, 예술, 교육 및 청소년 교류 분야 협력을 제안하고 멀리 않은 날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구청장은 "사하 공화국 대표단의 광주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도시의 교류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타니스라브 지르코프 국립의료원장은 "사하 공화국 내 여러 환자들을 위한 선진 교류 차원에서 방문하게 됐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 교류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26일 구청에서 스타니스라브 지르코프 국립의료원장 등 사하 공화국 대표단을 접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광산구는 호남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주민 지원 전담 부서(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하고, 카자흐스탄 제티수 주 카탈라 군과의 우호도시 협약,

몽티모르 국회의원 재외투표 선거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국제교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시민의 지혜로 경제위기 극복한다

경제주체별 현장 대화...시민 제안 공모 등 민생활력 정책 발굴

광주 광산구는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 가계 부채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부터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비 진작, 민관연대 협력, 취약계층 지원, 선제적 재정집행 등 5개 분야

를 중심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발견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공직자의 역량을 모으고 시민의 지혜를 구한다.

우선 46개 전 부서가 지난 25일부터 소상공인, 취약계층, 유관단체, 관계기관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만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

하는 현장 대화에 나선다.

광산구는 현장 대화가 효과적인 정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해 정확한 현황 분석,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경제위기 극복 민생활력 시민 제안 공모도 추진한다. 민생안정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공모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부서별 채택 여부 검토를 통해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 부서 현장 대화, 시민 목소리 수렴을 토대로

4월 중 구청장이 주재하는 공유회를 열어 분야별 민생활력 정책 골격을 다듬는다. 이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즉시 추진하고, 제도개선, 장기 검토가 필요한 제안은 예산 반영 등 실행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 광산구정 운영의 중심은 '민생'이라며 "다양한 경제주체와의 소통을 통해 전 공직자가 역량을 키우고, 시민의 지혜를 모아 활력있는 민생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성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